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각자 직업에 맞는 화두 듣자

새말귀(新話頭) ②

또 이전과도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화두도 스님네들이 가지고 있지 보통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된다 말이지. 그런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돼. 이거 맞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돼. 운전수가 화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돼. 안 된다면 운전수는 말이지 중생 아닌가? 은행에 다니는 사람 화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만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이지 중생 아닌가? 그 사람들은 인생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이러하기 때문에 화두는 불변의 이치인데, 가져야 되지만, 그 중생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이 방편이 새로 서야 됩니다. 나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가 나온 겁니다. 새말귀라 새 신(新)자. 신화두(新話頭)라 그 말입니다. 화두라 하는 것은 말귀입니다. 처음에 내가 새말귀라고 하니깐, 화두라고 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한국에 인연을 받았습시다. 인연을 받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갖다 써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라고 하면 통합니다.

운전수도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소를 잡는 사람도 말을 잡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지식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화두 좋습니다.

스님네들로서는 가장 적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화두는 변소에 가서도 화두를 놓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만족해.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어. 좋아. 그러나 신도들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 구태의연하게 신도들을 스님네들 취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책도 없습시다. 그건 어딘가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말마디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성불하는 길은,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천 가닥만 가닥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수는 운전수로서의 화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의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이걸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면 새말귀란 뭇이나? 이겁니다. 아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라 말이지. 나무도 허공성 산도 허공성 물도 허공성, 밭도 허공성, 심지어 내 몸뚱어리 이것도 허공성, 이러한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탕을 알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알기가 수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성 자리를 알아야 돼. 절대성 자리.

“

운전수도 은행원도 백정도

각각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

이것을 '새말귀'라 명명

만약 운전수가

자동차를 잘 운전하겠다는

생각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새말귀'

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참선할 때 다 놓아야

”

그러니까 몸은 상대성이다. 몸은 상대성인데 이걸 자체성이 없다. 내가 이걸 가져도 손은 이걸 가진 줄 모릅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안다면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손에 자체성이 없거든.

이걸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 우리가 어디 걸어도. 어디 걸어도. 발에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발은 모르는 거예요. 발 뿐 아니라 몸뚱이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를 내가 알아. 이 도리를 알고 손을 움직여줍니다. “손을 움직여가서 뭘 건어잡는다. 눈으로 빛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내 성품 자리, 내 법신 자리, 이 자리가 그리 하는 거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 화두가 곧 잡혀. 그러기 때문에 운전수도 돼.

왜 그러냐면 운전수는 핸들을 잡고 있지만 핸들 잡은 손은 이거 무중물이다 아무 자체성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내 손을 시켜서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운전수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하면, 요 손발을 가지고서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로 기계를 밟고 손으로 핸들을 가졌다 말이지. 그러나 손이나 발은 몰라. 다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성품이 이 손으로 하여금 기계를 돌려.

그러니까 나는 기계를 잘 돌리겠다. 어찌하겠나. 이 생각만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화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화두예요. 요걸 새말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 아 내가 자체성이 없는, 우리의 몸은 무중물이거든요,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끄집고 나가서 오늘 일 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 또 일 다 마치면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나는 집에 들어간다. 결국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요게 중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얹아. 참선을 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놔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되지만 우선 처음에는 나는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보리라. 왜 그러느냐. 환해. 이것도 본래 밝은 것이 아니며. 또 어두우면 캄캄해.

이것도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며. 비명, 밝은 것도 아니고 비암,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보여.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보여. 그런데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칭찬여래 되면 삶이 즐겁다

10. 행원례

②-1 칭찬여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보다도 먼저 이 칭양하고 찬탄한다는 덕성부터 길러야 되겠다. 이것은 딱이나 중요한 일이다.

칭찬여래가는 어릴진진수불 각처보살회중(於一塵中慶數佛 各處菩薩衆會中)하는 첫귀로 시작한다. ‘하나의 티끌 가운데에 또 티끌 수만권의 덕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 참으로 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은 단순한 시적 과장이나 메타포가 아니라 벌써 믿음으로 화한 뚜렷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원자핵(原子核)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자핵이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립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발동하는 날이면 전세계에 우주 공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준다. 티끌 가운데는 이러한 원자핵이 수십만개 들어 있을 터인데 티끌 하나의 우주적인 신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티끌 하나의 위력에 눈 뜨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경탄과 감성을 가져야 할 줄 안다.

또 티끌 속에 계신 부처님은 ‘각처에 보살이랑 제자랑 권속들을 거느리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보살이며 제자 등을 거느리시겠지만 원자핵에는 또 그것대로 전자, 양자 중성자 하는 따위, 그 밖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권속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무진법계진역원 심신제불개충만(無盡法界塵亦然 深信諸佛皆充滿)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정이나 무정이나 다 부처고 그것이 다 부처라는 것을 확정한 이상 우리는 이를 칭양 찬탄해야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칭양 찬탄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덕을 낱말로 살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티끌 하나의 부처도 이와같이 각양의 덕이 모두 충만하였다.’ 이렇게 깊은 믿음으로 칭찬하여 그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칭찬하는 데는 그 부처들의 각양 각색의 낱말에 대하여 소리를 내어 칭양하고 찬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맙게 느끼더라도 말로 드러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칭양 찬탄에도 소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또 음성을 내어 칭찬할 바에는 그것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써서 해야 된

다. 다정스런 말, 미묘한 언사, 아어(雅語), 정답고 고운 말, 애어(愛語), 과연 실감이 있고 알맞은 말을 애써 찾아 내어서 해야 된다.

각이일체유성해 보출무진묘언사(各以一切音聲海 普出無盡妙言辭) ‘각양의 부처에 대하여 낱말이 소리를 내어 미묘한 말로써 칭찬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소리를 내되 시간적으로는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언제, 어느 때,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그 미묘한 말씨를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깊고 무량한 바다를 칭양 찬탄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러나 칭찬하는 소리라고는 거의 들을 수 없이 되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인간 사회가 아니라 생지옥이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또 우리는 한 민족이면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북한의 괴뢰집단은 남한에 있는 우리를 괴뢰도당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업신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갖지 못했다.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야 같은 민족의 한 핏줄이 아닌가. 육하고 혈통은 서로 마찬가지로. 민족은 민족끼리 서로 분열하여 업신여기려 들고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헐뜯고, 가정은 전권속이 서로 백안시하여 아예 존경할 생각을 안 갖는다면 그 집안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콩가루 집안이다.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우리 이 민족에게 상호 반목과 분열만이 있을 뿐 자비와 사랑과 화합대중(和合大眾)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당시의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분열과 엄청난 패륜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들 족속의 덕 있는 사람과 선지자(先知者)들을 업신 여기고 구박하고, 잡아 죽이었던. 그런 결과 유대민족은 늘상 남의 나라 지배만 받고 끝내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였다. 이들을 건지려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서 민족정신을 불어 넣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산상수훈(山上垂訓)을 하였지만, 유대민족은 그것이 최후의 기회였음에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아주 형편없이 잡아 죽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자기 민족의 적인 로마군에게 넘겨 그 로마군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였다.

원공제중생왕생안락국(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원컨대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칭찬여래의 행동을 함으로써 안태(安泰)하고 즐거운 지경에 도달하여 참람 사립다운 생활을 영위하여야겠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다. 여기 아무개 장한 사람이 있다. 흥 그거 무엇이 장해, 아무개는 무슨 큰 일을 했다.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투다. 사회의 단위는 가정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 부부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아낙네가 뇌까린다. 나는 팔자가 기박해서, 이놈의 집에 와서, 요놈의 자식이, 한 다. 자기 아이를 나무랄 때 요놈의 자식하는 것은 남편을 욕하는 소리가 된다. 자기 남편을 칭양하기는 커녕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은 부모를 있는동안 존재로 봐 버려, 서로 존중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여겨보면는 패륜·박정, 음산한 기사들은

“
유정·무정 모두 부처이니
티끌 하나의 부처도
각양의 덕이 충만

“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부처님 공덕 깊고 무량
이를 칭양 찬탄하다.

대구불교 범음.범패 의식(속성)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3일(금요일)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암판사진 3매

초급속성반 (3개월)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식, 조석종성염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관음시식.
□ 주 1회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중급속성반 (10개월)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탱화 점안, 위패접는법, 전오리는법, 요잡식, 지의접는법, 천수북, 정근북, 신중작법북, 가지계북, 구병의식, (상가)사다림염불.
□ 주 1회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작법 (주1회)

복청계,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우방미진하이츠 정문 맞은편)

☎ 전화 : (053)781-4200 / H·P 010-2547-4200
대구불교 범음.범패의식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범화경을 설하시는데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면 울리고 영산회사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범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